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북특사단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1박 2일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특사단의 산물 보따리는 과격적이었다. 3·5 합의에는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설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 용의, 대화 기간 핵·미사일 시험 중단,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 등 6개 항이 담겨 있다.

4월 말 정상회담 개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1948년 4월,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연석회의 70주년이 되는 해이

특사단의 3·5 합의는 남북한 윈-윈이다

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예고한다.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을 할 때 남측의 평화의 집과 북측의 통일각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관례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은 형식과 격식이 복잡했다. 양 정상이 당일 회담·출퇴근 회담을 한다면 그 효율성은 배가될 것이다.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설치의 한반도의 제반 문제를 수시로 협의·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냉전시대 미·소·영·소·프·소 간 직통 전화 협정 체결로 위기 국면을 돌파한 경험적 사례들이 많다. 국제 사회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의 군부들은 최고 지도자의 뜻과 관계 없이 호전성을 지닌다. 실제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군사적 충돌은 늘 있어 왔다. 정전 체제에서 오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상 간의 직통 전화는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충돌 시 확산을 방지하면서, 충돌 후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 표명은 성과 중의 성과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사회주의 헌법에는 핵보유국임이 명시됐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역설해 왔다. 하지만 김정은 위

원장은 이번에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특사단에 밝혔다.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핵이 체제 보장용임을 보여 준다. ‘선 체제 보장, 후 비핵화’ 구도라면 조건부 비핵화로 해석된다. 체제 보장과 비핵화가 선·후 관계가 아니라면 체제 보장은 비핵화로의 입장 변화를 위한 명분 확보용으로 해석된다. 조건부든 명분 확보용이든 북한의 비핵화 표명은 북미 대화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 용의의 표명도 중요하다.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의 조건에 부합된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이다. 북미 대화는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옛것제 특사단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에 전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했었다. 특사단장이 김 위원장의 전언을 대미 특사 파견, 미군인력유착 삭방, 미군 유해 발굴 재개 허용, 미국을 비롯한 국제원자력기구(AEIA) 사찰단의 영변핵단지 복귀 등으로 추정된다.

대화 기간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

다는 것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 준다. 미국의 대화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연계하지도 않았다. 북한 군부의 입장에서 비핵화와 한미 군사훈련의 불연계는 불만일 수가 있다.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평가된다.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초청은 평창 올림픽의 화합과 통합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사단의 방북 1라운드는 남북한 윈-윈의 합의를 이끌었다. 2라운드는 북미 대화이다. 미국은 1라운드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만간 북미 간 탐색적 대화 또는 예비회담의 개최가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그리 어렵지 않다.

3라운드는 남북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지난 한 달 동안 진서도 교환하고 특사도 교환하면서 신뢰를 쌓아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태도를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한민족이 핵과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신뢰를 토대로 평화로운 한반도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유 기 영
순천 대곡동성당 주임신부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자세

안으로 덮는대거나 하면, 그 안에서 진짜 뉴스를 찾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유행하는 것이 ‘팩트 체크’인 듯합니다. 왜곡되었거나 과도하게 포장된 뉴스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면서, 그 뉴스들이 갑추고 있는 ‘팩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가짜 뉴스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 시대에도 가짜 뉴스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유대인들은 눈엣가시와 같았던 바오로를 보자 군중들을 왜곡된 말들로 선동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이었지만 이미 선동이 된 군중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를 벗어나 가는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에 나가게 된 바오로의 죄목은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관습도 따르지도 말라.”(사도 21, 21)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매우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바오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 제일주의에 대한 거부였지, 구약의 율법이나 하느님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는데도, 그와 같은 바오

로의 생각엔 관심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한때는 자신들과 생각이 같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자신들과 생각이 달라진 바오로가 그저 못마땅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편협한 사고와 왜곡된 선동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 바오로가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사도 23, 6) 그곳에는 부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던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이 있었고, 결국 두 파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자 바오로는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분열을 조장하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조작 흔적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바오로가 그 순간 부활을 언급한 것은, 부활이 아 말로 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참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죽게 될 수도 있으니, 단 한 마디만 말하라고 한다면 바오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부활에 대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거짓 뉴스에 대해서 바오로는 ‘진리’로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1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 32)-거짓 뉴스와 평화를 위한 저널리즘’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홍보 주일 담화문을 미리 발표하시면서,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소한 진실 왜곡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오직 ‘진리’만이 “거짓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독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를 불신이 만연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켜, 결국 많은 이들을 죄의 사슬에 얽매게 할 뿐입니다. 공공언론에 의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뿜는 누군가를 향한 왜곡되고 과장된 뒷담화 역시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옳아 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 고



박 일 경
언어교정&글쓰기&심리치료 아카데미 대표

중년기, 중대 결정을 해야 하는 인생의 기로

전환기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기도 했다. 몇 세를 중년기로 결정하든지 간에 이 시기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남·녀 모두에게 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청년기의 강인함과 탄력성은 줄어들고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암 등의 성인병에 더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과도한 직장 업무로 인한 과로사도 발생하기 쉬운 연령대가 바로 중년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물학적 변화 및 신체적 쇠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협을 직면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어디 신체적 변화 뿐이겠는가? 자녀 돌봄 및 독립과 노부부 부양, 가족 및 사회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매우 큰 때가 중년기이다. 즉 생물학적 능력은 감퇴하는 반면 사회적 책임은 더 증가하는 시기인 것이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급증과 이로 인한 사회 병리적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중년기의 우울은 비단 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개입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됐다.

또한 수명의 연장 및 노년 인구의 증가로 인해 중년기 이후의 자아 통합, 즉 40~45세를 중년의 전환기, 50~55세를 50대 전환기, 60~65세를 후기 성인

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중년기는 무엇이다 자아 성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이다. 즉 중년기는 자기 관찰과 내면 탐색을 통하여 지나온 자기 생을 재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재해석, 수정하여 재수립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일 뿐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 사회적 안정과 성장을 뜻하는 자기실현(자아통합)을 꾀하여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한편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단계를 바탕으로 해 인생을 발달 심리학적으로 8개의 단계로 구분한 독일 출신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k.Erikson)은 7단계에 해당되는 중년기를 ‘자신의 가족을 넘어 타인과 미래의 후손,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계와 인류를 돌보는’ ‘돌봄’이라는 덕목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보았다. 즉 중년기를 맞은 사람은 ‘나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깊이 숙고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중년기는 다음 단계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시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중년기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격의 통합을 이루어 가고자 노력하면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 훨씬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적 요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외부의 삶에만 몰두하거나 통합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바야흐로 ‘중년기의 위기’, 즉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 절망감, 정체감, 무기력감등의 정서적 혼란과 방향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자기실현을 위한 인격의 통합과 생의 가치관 재정립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수용을 가져오고 보다 조화로운 타인과의 삶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행복한 삶을 실현시킨다. 이는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감히 묻고 싶다. 자신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가족과 이웃에게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자신의 본질과의 만남을 꾀하는 실존적 고뇌와 내적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자기 속의 자기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 자기 탐색을 통해 삶을 재구성하려는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바야흐로 다가온 삶의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社 說

예비 후보들 이제 ‘대통령 마케팅’은 잊어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자신들의 대표 직함에 무분별하게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 상승을 노리고 술단의 평양 초청은 평창 올림픽의 화합과 통합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동안 민주당 당적으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노무현·문재인 직함’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특히 호남처럼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이 같은 ‘대통령 마케팅’이 더욱 빈번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의 경력을 보면 상당수가 ‘노무현·문재인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력력에 대표 경력을 두 가지만 써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 너도나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경력을 직업함에 새겨 넣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대선 캠프에서 조그만 직책을 맡았던 경력까지 직함에 넣어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비 후보들이 대통령 관련 직함을 고집하는 이유는 대통령 관련 이름 석 자만 들어가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공천 풀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나 후보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마케팅은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강조해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위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구체적인 경력 표기 기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기준안이 마련되면 후보자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실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대통령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후보자가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알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0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학교, 묘안 없다

문을 닫는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심각성이 더욱 피부로 외닿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의 도내 초·중·고등학교 수는 1982년도에 비해 절반가량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에 학생 수도 88만1922명에서 20만210명(22.7%)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1982년에는 초등 1239, 중등 308, 고등 162개 등 총 1709개 학교였으나 올해는 초등 489, 중등 256, 고등 142개 등 887개(51.9%) 학교만 남았다. 특히 초등학교는 감소 폭이 중·고교보다 커서 39.5%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887개 학교 가운데 41.9%(372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거나 통폐합 대상 학교로 분류됐다.

학교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농촌 인구 및 출산을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폐교 급증 및 소규모 학교 증가→교육

질 등 농촌생활 여건 하락→농촌 유입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05명(2017년)인 ‘초(超) 저출산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촌 지역 학교의 폐교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등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공동체는 앞으로 더욱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한 지역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듯싶다.

수도권 과밀 인구 분산과 지방 분권 같은 굵직한 문제 해소부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여러 문제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無 等 鼓

판문점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상에 설치한 공동경비구역이다. 공식 명칭은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곳의 본래 지명은 ‘널문리’였다. 사천강에 널빤지 다리가 있어 널문리라 불렀는데, 옛날 임금이 강을 건너려는데 다리가 없어 마을 주민들이 대문을 뜯어서 다리를 급히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해 내려온다. 널문리에는 조선 초기 중국 사신이 한양으로 가기 전 잠시 쉬는 주막이 있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 입장한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들은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 동측장관의 비극은 3년이 넘게 이어졌지만 휴전 회담에 걸린 시간은 겨우 12분이었다. 총과 대포 소리가 일제히 멎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었을 뿐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은 ‘뜨거운 전쟁’에서 ‘차가운 전쟁’으로 전환을 의미했고 판문점 얘기도 전해 내려온다. 널문리는 조

최전방 초소가 됐다. 분쟁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 구역 ‘평화의 집’에서 오는 4월 나 돌씩 늘어 주막 마을이 됐다

나그네들이 쉬어 가는 주막 마을이 전쟁을 쉬는 휴전 협상의 장소로 변한 건 1951년, 휴전 회담은 7월 개성에서 시작했지만 중립 지대로 결정된 회담 장소가 양측의 공방전으로 위협을 받게 되자, 유엔군 측이 남쪽으로 이동하자고 요구해 같은 해 10월 널문리 주막 앞 광장에 임시 천막을 쳤다. 중국 측이 ‘널문리 가게’를 한자로 표기해 ‘판문점’으로 고쳐 부르면서 이름도 달라졌다. 평화로운 널문리는 사라지고 분쟁의 공간인 판문점이 탄생한 것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평화의 집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222-0195)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